

## 김보경·문기한 연속골 日과 4강 진출 겨룬다

이라크 2-0 꺾고 조 2위 8강

아시아축구연맹 U-19 선수권

4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에 나선 한국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이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에서 영원한 맞수 일본과 4강 진출을 다룬다.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담당의 프린스 모하메드 빈 파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대회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전반 23분 김보경(홍의대), 후반 32분 문기한(FC서울)의 연속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시리아와 첫 판에서 1-0으로 이긴 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차전에서 1-2로 역전패했던 한국은 2승1패가 됐고 UAE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8일 오후 10시15분 같은 장소에서 A조 1위 일본과 4강 길목에서 맞붙는다. 이번 대회 4강에 들어야 내년 아시아 챔피언 북한은 6일 조 1위 자리를 건 외나무다리 대결을 펼치고 D조에서는 나란히 1승1무인 호주와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요르단, 태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남겨두고 있다.

A조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8강을 벌인다.

일본은 앞서 열린 사우디와 A조 3차전에서 1-1로 비겨 나란히 2승1무가 됐지만 골득실차에서 앞서 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일본 J-리그에서 뛰는 김동섭(시미즈)과 조영철(요코하마FC)을 투톱으로 세운 4-4-2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이라크와 승점은 같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3위로 처져 있던 한국은 8강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겨야 했다.

전반 23분 이라크 골문이 열렸다. 구자철이 상대 골 지역 오른쪽을 파고들어 오른발슛을 날렸고, 공이 골키퍼 손에 맞고 반대편으로 흘르자 김보경이 달려들며 침착하게 원발로 차 넣었다.

이후 불안한 리드를 지킨 한국은 후반 32분 문기한이 아크 정면으로 공을 몰다 상대 수비가 느슨한 듯하자 바로 오른발 중거리슛을 날려 오른쪽 골문 구석에 꽂아 넣었다. 8강행의 뼈를 박는 값진 골이었다.

한편 C조에서 2연승으로 1위를 달리는 중국과 1승1무를 기록 중인 지난 대회 챔피언 북한은 6일 조 1위 자리를 건 외나무다리 대결을 펼치고 D조에서는 나란히 1승1무인 호주와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요르단, 태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 세이버스-금호생명 레드윙스 경기에 서 국민은행 김수연(오른쪽)이 금호생명 원진이의 블로킹을 제치며 슛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82-6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프로축구연맹, 11일 상무 광주구단 퇴출 여부 결정

#### 광주, FA컵 4강행 실패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광진화 회장과 각 구단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올해로 상무와 계약이 끝나는 광주 구단의 퇴출 여부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창단 승인을 신청한 강원도민축구단(가칭 강원FC)의 가입 문제도 논의한다.

한편 광주 상무는 5일 경남 합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08 하나은행 FA컵 대회 8강전에서 경남 FC에 0-1로 패해 4강 진출이 무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4분당 1골 24골 폭발

### 여자축구 사상 최다골 差 승

#### 한국, 싱가포르 상대 진기록

#### AFC U-18 여자청소년선수권

한국 18세 이하 여자청소년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에 24골을 폭발시켰다.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4일 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PF) 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예선 A조 4차전에서 싱가포르를 24-0의 '핸드볼 스코어'로 제압했다고 선수단이 5일 알려왔다.

1차전에서 요르단을 11-0으로 꺾은 뒤 필리핀(20-0), 베트남(6-0)을 연달아 물

리친 한국은 승점 12로 조 1위를 달리며 내년에 열리는 대회 본선(시기·장소 미정)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해트트릭을 작성한 선수가 무려 4명이나 나왔다. 박성은(여주대)이 최다인 5골을 몰아넣었고 공혜원(현대정과고)과 김나래(오산정보고)가 4골씩을 뽑아냈으며, 김진영(현대정과고)도 3골을 성공시켰다.

24골 차 승리는 여자축구 각급 대표팀 가운데 최다이지만 남자까지 통틀면 최고 기록보다 약간 모자란다.

최다골 차 승리 기록의 주인공은 지난 해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AFC 청소년선수권대회 예선에서 꼴을 28-0으로 대파한 한국남자 18세 이하 대표팀이다.

/연합뉴스

생명(15 : 50·SBS스포츠)

▲2008 일본 프로야구 일본시리즈 5차전

<세이부 : 요미우리>(18 : 00·SBS스포츠)

▲08/09 프로농구<삼성 : LG>(18 : 50·MBC ESPN·Xports)

7일(금)

▲2008 네이션와이드투어 네이션와이드

투어 험파인십 1R(06 : 00·SBS골프)

▲08/09 여자프로농구<우리은행 : 삼성

투어 험파인십 1R(06 : 00·SBS골프)

## “LPGA 2승 재도전”

### 신지애 미즈노클래식 출전

#### 우승땐 비회원 2승 진기록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일본으로 무대를 옮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두번째 우승에 다시 도전한다.

7일부터 사흘간 일본 미에현 시마의 긴데쓰 가시고자마 골프장(파72·6천 506야드)에서 열리는 미즈노 클래식에서 우승하면 LPGA에서 처음으로 한 시즌에 2승을 올린 비회원 선수가 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 일본 메이저대회를 섭렵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신지애는 이번 대회를 27일 개막하는 일본 메이저대회 리코컵 LPGA챔피언십을 대비해 샷을 점검하는 무대로 삼을 계획이다.

신지애는 최근 LPGA 투어 정식 회원이 됐지만 이번 대회에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상금 상위 랭커 자격으로 초청장을 받았다.

따라서 신지애는 이번 대회만큼은 LPGA 투어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하는 셈이다.

역대 LPGA 투어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2승 이상을 올린 선수는 1994년과 1995년 도레이재팬컵(미즈노 클래식 전신)을 연속 우승한 고우순(44)이 유일하다.

지난 8월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지난 주 국내에서 열린 하나은행-코오롱 험파인십에

/연합뉴스

서는 우승컵을 놓쳤지만 을 시즌 네차례 출전해 우승 한번과 준우승 세번이라는 좋은 성적을 남긴 일본에서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신지애는 미즈노 클래식에서 우승하면 LPGA에서 처음으로 한 시즌에 2승을 올린 비회원 선수가 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 일본 메이저대회를 섭렵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신지애는 이번 대회를 27일 개막하는 일본 메이저대회 리코컵 LPGA챔피언십을 대비해 샷을 점검하는 무대로 삼을 계획이다.

신지애는 최근 LPGA 투어 정식 회원이 됐지만 이번 대회에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상금 상위 랭커 자격으로 초청장을 받았다.

따라서 신지애는 이번 대회만큼은 LPGA 투어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하는 셈이다.

역대 LPGA 투어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2승 이상을 올린 선수는 1994년과 1995년 도레이재팬컵(미즈노 클래식 전신)을 연속 우승한 고우순(44)이 유일하다.

지난 8월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지난 주 국내에서 열린 하나은행-코오롱 험파인십에

/연합뉴스

한국 18세 이하 여자청소년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에 24골을 폭발시켰다.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4일 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PF) 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예선 A조 4차전에서 싱가포르를 24-0의 ‘핸드볼 스코어’로 제압했다고 선수단이 5일 알려왔다.

1차전에서 요르단을 11-0으로 꺾은 뒤 필리핀(20-0), 베트남(6-0)을 연달아 물

리친 한국은 승점 12로 조 1위를 달리며 내년에 열리는 대회 본선(시기·장소 미정)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해트트릭을 작성한 선수가 무려 4명이나 나왔다. 박성은(여주대)이 최다인 5골을 몰아넣었고 공혜원(현대정과고)과 김나래(오산정보고)가 4골씩을 뽑아냈으며, 김진영(현대정과고)도 3골을 성공시켰다.

24골 차 승리는 여자축구 각급 대표팀 가운데 최다이지만 남자까지 통틀면 최고 기록보다 약간 모자란다.

최다골 차 승리 기록의 주인공은 지난 해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AFC 청소년선수권대회 예선에서 꼴을 28-0으로 대파한 한국남자 18세 이하 대표팀이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 구독신청 및 배급사고는 — 본사 판매국(062) 220-0551

#### 사랑방

담양군 지침리 송외과 뒤  
국내 최고급 병원 40평 규모로 지어진 4층  
대표 권 명 일  
☎(061)382-3989

#### 장가네

담양군 지침리 송외과 앞  
제2동 주민센터 옆  
오늘스케치(061)381-6062

#### 삼성치킨

동구 황금동 제일극장 4거리  
치킨전문점  
대표 조 은 하  
☎(062)228-3372

#### (주)제이엔케이

서구 미월동 유동센터 13동 206호  
금지역에 위치한 미월동 유동센터에 입점  
대표 이 성 래  
☎(062)226-9977

#### 조은의료기

복구 용동동 회현동 건너편  
복지용구, 전동휠체어, 의수족, 의료기기  
대표 흥 인 기  
☎(062)362-5579

#### 스포츠당구장

동구 회현동 회현동 2층  
최신시설로 꾸민 최고의 서비스  
대표 흥 인 기  
☎(062)224-0909

#### 다온유치원

동구 회현동 회현동 2층  
최신시설로 꾸민 최고의 서비스  
대표 최 정 인  
☎(062)651-0579

#### 상지공인증개사

서구 금호동 금호1동 시민회관  
대표 임 경 심  
☎(062)373-0203

#### 그레이스양복점

서구 상지동 CGV빌딩 퍼미타워 301  
명품스타일 및 맞춤점장  
대표 전 창 호  
☎(062)363-8887

#### 골든리버모텔

담양군 백동리 한전정문 앞  
최신형화장, 초고속인터넷 방  
인터넷방상우 퀸수 우연숙박시설  
대표 윤 재 영  
☎(061)383-8860

#### 밀미술원생삼겹살점

담양군 지침리 송외과 앞  
제2동 주민센터 옆  
대표 윤 재 영  
☎(061)381-1370

#### 맛조이분식

남구 주월동 국제호텔에서 하이마트 종교자점  
홍어요리 전문점  
대표 오 금 석  
☎(062)676-3883

#### 상지공인증개사

서구 금호동 금호1동 시민회관  
대표 임 경 심  
☎(062)373-0203

#### 스포츠당구장

동구 회현동 회현동 2층  
최신시설로 꾸민 최고의 서비스  
대표 최 정 인  
☎(062)651-0579

#### 전라도맛집

동구 화동 그랑프리호텔 옆  
병어조림, 갈치조림, 생